

푸드뱅크 · 푸드마켓 이용 대상 확대

7월부터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탈락자도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지역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기부식품 이용자 변경' 지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식품 접수량과 배달 인력 등을 고려해 차상위계층 가운데 우선 긴급지원대상자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 기부식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긴급지원대상자는 푸드뱅크를, 기초수급 탈락자는 푸드마켓을 이용토록 하되 읍·면지역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이용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기부식품을 계속 지원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푸드뱅크 4곳, 푸드마켓 2곳이 운영되고 있다.

푸드뱅크는 식품 제조·유통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식품 또는 생활용품

무상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 배달해주는 사업장이며, 푸드마켓은 수혜자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기부식품을 선택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든 상설 매장 형태의 시설이다.

기부 식품은 통조림, 햄·빵류 등의 가공 식품은 물론 채소, 과일, 고기 등의 농·수·축산물과 비누, 치약 등

생활용품까지 모두 가능하며, 후원금도 접수한다. 후원금은 식품 구입비로 쓰인다.

기부자는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식품기탁을 원하거나 기부 식품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뱅크(702-378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 개원

옛 신흥분교장 리모델링



제주지역의 다문화 교육을 담당할 전문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시 조천초등학교 옛 신흥분교장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4월 6일 현지에서 제주다문화교육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부지 1343㎡에 건축 전체면적 5606㎡ 규모로 마련된 이 센터는 다문화정보실, 상담실, 다문화체험실, 요리체험실, 멀티미디어실 등을 갖췄다.

다문화교육 전문 센터가 설립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센터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전문 한글교육, 기초학력 증진교육, 이중언어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도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이뤄진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취업장애인 임시·일용직일자
시설 탐방-동광호도마을

■ 사회복지소식 4·5면
중증장애인 자립 돕는다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 오피니언 6면
컬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제32회 장애인 날 기념식

■ 기획 8면
이웃사랑 자원봉사·청소년봉사동아리

출산장려금 인상...첫째아도 지원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

제주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12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둘째 1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첫째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등록 여성 장애인에게는

1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는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각각 최대 7회, 3회에 걸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B형 간염과 홍역, 결핵 등 10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운맘 카드 형태로 지원해온 임신 출산진료비도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불임 부부에 대해서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180만원 범위에서 최대 4회까지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5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6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news@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계시판 알림-행사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제주시	제40회 어버이 날 기념식	모범노인·효자·효부 등 유공자 표창 등	8일 오전 10시 한라체육관	748-6446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홍보부스 운영	노인학대 관련 사진 전시, 이동상담실 운영 등	8일 오전 10시 한라체육관	757-3400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날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	실종아동 예방 홍보, 아동 팔찌 끼워주기 등	5일 오전 10시 공룡랜드	753-2740
	가면 만들기 체험	가면 만들기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복지관내 장난감도서관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과 함께 하는 자연 속으로 떠나는 여행!	제주올레 5코스(남원 포구~조배머들코지) 탐방	19일 낮 12시50분 제주종합경기장내 자동차등록소 앞	725-8005
	5월 가족 사랑의 날	환경을 생각하는 천연치약 만들기	18일 오후 7시~9시 센터 3층 강의실, 모집 기간=5월 14일까지	
제주시기적의도서관	어린이 날 행사	전래놀이, 축하공연 등	5일 기적의도서관	728-856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제주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	원예활동반, 풍물반, 불링반, 승마반, 난타반 운영	5월 12일~11월 24일 둘째·넷째주 토요일 (8월은 방학)	725-1370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 기념 사랑의 사진 공모전	주제=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진	13일까지 신청 접수	747-3273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5월 사회복지 아카데미	사회복지프로그램 질적 평가방법 이해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jejubokji.net)참조	702-3784

취업장애인 39% 임시·일용직

취업률 35%... 단순노무직 가장 많아

비장애인가구와 소득격차 '여전'

장애인의 실업률이 전체 인구 실업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장애인 일자리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다 해도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신분이어서 상시적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수는 268만명으로 장애출연율은 5.61%로 집계됐다.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 7000명으로 10년 전인 지난 2000년 90만7000명에 비해 2.77배 증가했다.

이처럼 등록 장애인 수가 급증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장애인 실업률은 7.8%로 전국 실업률 3.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장애인 취업률도 35.5%로 전국 취업률 60.3%에 크게 못 미쳤다.

취업 장애인의 직장 지위는 자영업자가 30.5%, 상용근로자 25.9%, 일용 및 임시 근로자 39.4%로 나타났다. 2008년엔 자영업자가 40.4%, 상용근로자 24.7%, 일용 및 임

시 근로자 28.3%였다.

3년 새 장애인의 고용 안정성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취업 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상용 임금근로자의 45.7%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이 취업하는 분야는 단순노무직(30.1%)이 가장 많았고, 기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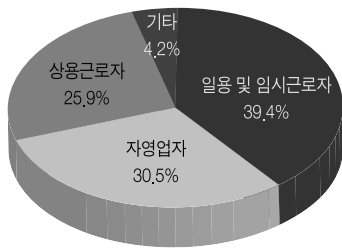
및 기능종사자(12.5%), 장치기계조작·조립(12.4%), 농·어업(12.2%), 판매종사자(8.2%) 순이었다. 전문가 및 전문직 관련 종사자는 7.1%, 관리자는 4.1%였다.

장애 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이 90.5%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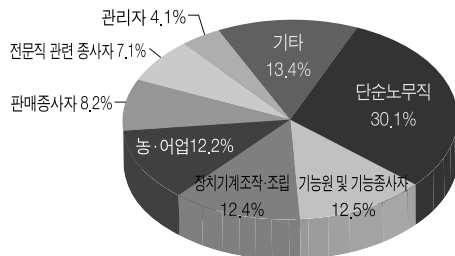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3년 전인 2008년 2.9점에 비해 향상됐지만 비장애인가구와의 소득 격차는 여전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2000원으로 전국 가구소득(371만3000천원)의 53%에 불과했다.

■ 취업 장애인의 직장 지위



■ 장애인이 취업하는 분야



장애인의 일상생활 때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가족이 84.2%로 가장 많았다. 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 등 공적 돌봄 서비스제공자인 비율은 10.8%로 2008년의 3.0%에 비해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에 나섰다.

제주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달 간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나 긴급지원 대상자 등 복지소외계층을 집중 발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수급 탈락자와 가구원 중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 창고·공원·화장실·비닐하우스 등의 거주자다.

이 밖에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신체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빈곤·학대·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 등이다.

제주도는 이 기간에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책정, 긴급복지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4주년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가 4월 26일 오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동한 이사장, 호암상 수상자 선정

사회복지법인 준강 이동한 이사장(61)이 호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호암재단(이사장 이현재 전 국무총리)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헌신해 온 이동한 이사장을 2012년도 제22회 호암상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확정, 발표했다.

중증 장애인인 이 이사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지난 30년간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과 의료복지 시설을 설립·운영하며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쓴 것은 물론 장애인 복지분야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고

호암재단 측은 설명했다.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오후 3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호암상은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인재 제일주의와 사회복지 정신을 기려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0년 제정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제주형 사회복지 서비스 모델 개발

도 제발연에용역 의뢰...내년 시범 실시

올해 안에 제주형 사회복지 서비스 모델이 개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민간 차원에서 기부한 금액 등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편중된 데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예방적 차원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해 차상위계층 등 법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은 기초수급자를, 민간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역할을 분

담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관은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기능 축소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기능전환 및 특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정책 개발 및 시설평가 인증 등 관련 정책을 맡을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용역은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전문가 자문과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제주형 사회복지 서비스 모델을 확정, 내년 시범 실시한 후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변태엽 제주도 복지청소년과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복지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이주여성 취업·창업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다문화가정센터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제주문화관광 통역해설사 양성과 취업 및 창업 요리교실 등 2개 과정

이 운영된다.

문화관광 통역해설사 양성 과정은 제주의 역사문화와 관광통역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며, 취업·창업 요리교실은 제주의 독특한 음식문화와 전통요리법, 외식업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요리 기술을 실기 위주로 교육하는 방식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기준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인솔자가 따로 없으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직접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통학 차량에 별도의 인솔 교사가 없을

때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보도나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또 통학 차량에는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설탐방

(54)동광효도마을



1년 365일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광원이 운영하는 동광효도마을(원장 부재옥)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동광효도마을을 4월 17일 찾았다.



지난 2006년 5월 개원한 동광효도마을의 입소 정원은 65명으로 현재 63명의 어르신들이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 가운데 중풍, 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이 요양시설은 사무실, 의료·간호사실, 생활실, 식당, 목욕탕,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직원은 모두 39명.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종사자들이 근무한다.

이들은 입소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요양·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어르신들의 곁을 지키며 가족을 대신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

이는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봐도 한 눈에 알 수 있다. 어르신들의 세면을 돕고 머리를 감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목욕과 식사를 할 때, 이동할 때도 늘 도움을 준다.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체위를 바꿔주고 음식도 따로 챙겨준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어르신 무한돌봄 가족 부양 부담덜어줘...사회적 안전망 역할

건강검진과 재활치료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음악과 미술치료, 영화감상, 생신파티, 지역사회 행사 참여 등 여가생활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활력소를 불어 넣어준다.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이들은 요양원을 찾아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학생들은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동광효도마을은 본연의 요양시설 업무 외에 제주도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실 위탁교육사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이 곳에서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어

른 돌봄과 인성·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동광효도마을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 20여 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동광원 산하 동광노인복지센터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재옥 동광효도마을 원장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는 편안하게 요양할 수 있도록 의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가족에게는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794-0361

치매환자 2050년엔 4배 증가

올해 52만명 → 2030년 113만명 → 2050년 212만명

국내 치매 환자가 오는 2030년엔 현재의 2배, 2050년엔 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고 올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 574만2000명 중 9.1%인 52만2000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해 2030년엔 113만5000명, 2050년엔 212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치매에 걸리는 치매 유병률도 현재 9.1%에서 2030년 9.6%, 2050년 13.2%로 늘어날 전망이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9.1%가 걸릴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되고 있다”며 “조기에 발견해 치료·관리하면 진행 속도가 지연되는 만큼 조기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지속적인 두뇌운동, 건강한 식습관 유지가 중요하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치매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치매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치매 관련 전문 정보나 정부지원 사업은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www.edement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센터 개소

제주지역에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여하고 수리해 주는 전문 서비스센터가 4월 26일 문을 열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삼다(이사장 양예홍)는 이날 오전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복지관 2층에 마련된 이 센터는 사무실, 전시실, 수리

실 등을 갖췄다.

또 전동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105종 144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센터는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와 수리는 물론 보조기구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벌인다.

제주도는 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신체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로당에정부양곡지원

제주시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내 경로당 255개소에 정부 양곡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양곡은 지난해산 정부 수매 일반비로 읍·면 소재 경로당 116개소에는 경로당별 연간 7포대(포대당 20kg)를, 동지역 경로당 139개소에는 연간 6포대가

지급된다.

양곡은 제주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매월 21일부터 말일 사이에 택배로 배송된다.

양곡 지원비는 국비와 지방비 50%씩 투입된다.

제주시는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간식비, 시설기능보강 사업비 외에 추가로 양곡을 지원함에 따라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증장애인 '홀로서기' 돕는다

애덕의 집, 체험홈 4곳으로 확대 운영 사회적응 훈련 통해 완전한 자립 지원

제주애덕의 집(원장 현성훈 신부)이 중증장애인의 홀로서기를 돕는 '체험홈 4호'의 문을 열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제주애덕의 집은 4월 10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중증장애인 체험 주거공간인 '애덕 4호 신제주 체험홈'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체험홈은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자 중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주거공간으로, 완전한 자립생활을 하기 전 중간 거주지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에 문을 연 체험홈에는 중증 장애인 5명이 입소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밥 짓기, 요치, 청소,

세탁하기 등 일상생활 훈련은 물론 교통 이용하기, 장 보기, 외식하기 등 사회 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입소자들의 건강관리, 금전관리, 의식주 관리 등 일상생활에 대해 조언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덕의 집은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제주시 화북동에 처음으로 체험홈 1호의 문을 연 데 이어 그 해 3월에는 삼도동에 체험홈 2호를, 올해 3월엔 서귀포시 중문동에 체험홈 3호를 열었다. 이들 체험홈은 단독 주택이나 빌라에 마련됐으며, 현재 한 곳당 4~5명의 중증장애인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체험홈 거주기간은 1년이며, 최장 3년까지 머물 수 있다.



김효원 제주애덕의집 사무국장은 "체험홈은 생활시설에 있던 장애인이 자립하기까지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주거공간"이라며 "자립하고 싶은



데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남유나이티드FC 창단

제남아동복지센터(원장 이상준)는 센터 아동과 직원들로 구성된 축구팀 '제남 유나이티드 FC'를 창단했다.

제남 유나이티드 FC는 축구에 소질이 있는 센터 중·고등학생 14명과 직원 5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축구 기본훈련과 전술 분석, 포지션 훈련을 받고 다른 축구클럽과 연습경기도 할 예정이다.

이상준 원장은 "축구팀 창단을 통해 아동들의 심신 건강을 다지는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줄으로써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마/당

제장복, 멘토링 학습지원 출범식 참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4월 12~14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이상철)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멘토링 학습지원사업 출범식을 겸한 영어마을체험 행사에 참가했다.

롯데월드와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멘티와 멘토들이 참석했다.

신도시로타리클럽, 후원금품 전달



제주신도시로타리클럽(회장 김성찬)은 3월 22일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을 방문,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맞춤형 휠체어 제작비 300만원과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후원했다.

제주장애인요양원은 이번 후원금으로 중증장애아동의 체형에 맞는 휠체어를 제작, 아동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장애인부모회, 한지·제과교실 운영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장애인을 둔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아카데미 프로그램인 '한지공예 교실'을 운영한다.

5월 18일에는 제주장애인부모회 교육장에서 '제과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케어하우스 개원 5주년 기념행사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김정현)는 3월 30일 개원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도내 성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케어하우스는 이날 행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그동안 서로가 흘린 땀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통해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식 개최

故 양지승 어린이 추모 가두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4월 27일 '제5회 아동학대추방의 날' 기념식 및 故 양지승 어린이 추모 기념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행사는 지난 2007년 4월 실종된 지 40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양지승 어린이의 모교인 서귀북초등학교와 공동으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오후 1시 서귀북교에서 아동학대추방의 날 기념식이 열린 데 이어 서귀북교 일대에서 양지승 어린이를 추모하는 가두 캠페인이 진행됐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귀포시민들에게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김운영 관장은 "다시는 고(故) 양지승 어린이와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 권익을 보호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교생 형·언니가 생겨 기뻐요"

아동 학습지원 멘토링 결연

"형편 어려운 어린이의 학습과 상담은 형과 언니가 책임질게요"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4월 14일 제주시내 결손빈곤가정 아동을 오현고등학교 학생 및 자원봉사와 1대 1로 연결해 주는 '희망의 날개달기 멘토링' 결연식을 열었다.

희망의 날개달기 멘토링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과 청소년 간 멘티-멘토 결연을 통해 학습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는 한 달에 2번 이상 멘티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학습과 생활지도, 상담을 해 주고 연간 2차례의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아동들에게 조언을 해 주고 새롭게 인연을 맺은 멘토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7개 복지관별 지역주민 위한 다양한사업 전개 역사문화생태체험 · 실버예술봉사대 운영 등

제주시지역 7개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별로 아동과 청소년,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은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저소득 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생태 체험 프로그램인 ‘즐거운 토요일’을 운영한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경희)은 ‘사진 속 나만의 세계’란 주제로 아동과 청소년이 주도하는 문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제주의 역사와 자연을 탐방하는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인 ‘탐나는 제주’를 운영한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한림읍과 애월읍, 한경면 등 서부지역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의 예능 경연대회와 공연 무대인 ‘은빛 어르신 한마당’을 개최한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어르신들의 애환을 언어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살아와수다’ 프로그램을 연 말까지 운영한다.

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언)은 노인들로 구성된 ‘실버 사랑나눔 예술 봉사대’ 운영한다.

이 봉사대는 요양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민요를 열창하고 장구춤 공연을 펼친다. 북한 이탈 주민인 새터민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도 열린다.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새터민들의 지역 사회 정착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새터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이웃사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종합사회복지관별 특화프로그램은 제주시의 특화사업 공모를 거쳐 선정됐으며,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만~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탐험

서장복, 체험부스 운영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서장복)은 4월 17일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올림피기념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제11회 서귀포시 장애인 한마음축제’에 참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동이 함께하는 장애탐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서장복은 이날 행사장에서 장애탐험 코스, 장애체험 코스, 장애퀴즈 탐험 등을 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마련, 운영했다.

체험부스에는 어울림터, 정혜재활원, 서귀포시보건소 등 사회 복지 유관기관 관계자와 유치원생, 초·중학생 등 8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제주유나이티드와 서



귀포칼호텔, 마라도유람선 등 지역사회의 후원을 받아 장애퀴즈 골든벨 참가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어린이들이 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행사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서 영어교육 봉사



랭귀지프렌드 · 청소년랭프

영어교육봉사단 ‘랭귀지프렌드’와 ‘청소년랭프제주’는 3월 31일 제주시 구좌읍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캠프를 개최했다.

미국 출신의 원어민 강사인 에밀리와 청소년랭프제주 단장인 문경진군(제주고 1학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캠프에서는 벅룩시장, 쿠키만들기,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일일캠프를 준비한 랭귀지프렌드와 청소년랭프제주는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

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봉사단이다.

랭귀지프렌드는 영어학원 강사와 학교 교사들로, 청소년랭프제주는 제주의 외국어고 학생들로 각각 구성됐다.

고정숙 랭귀지프렌드 단장은 “다양한 게임과 만들기 등을 통해 아동들이 영어에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랭귀지프렌드와 청소년랭프제주는 지난 2010년 ‘1004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이 됐다.



봉아름지역아동센터, 관광체험

봉아름지역아동센터(시설장 임진희)는 4월 4일 제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관광 명소 체험에 나섰다.

평소 관광지를 둘러볼 기회가 적었던 센터 아동들은 이날 유명 관광지를 탐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임진희 시설장은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이 됐다”며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동부보건소, 건강 홍보관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양승만)는 4월 6~8일 우도면 하우목동에서 우도소리축제 참가자와 우도지역 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건강체험 홍보관을 운영했다.

동부보건소는 이날 홍보관 운영을 통해 건강상식을 비롯해 암 예방, 구강관리 등 건강관리 실천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건강걷기 캠페인도 전개했다.

동부보건소는 앞으로도 지역 행사와 연계해 건강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휠체어 타이어 무상 교체 지원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최희순)는 4월 5일 자전거 전문업체인 아이러브바이크와 용두암하이킹의 후원을 받아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수동휠체어 10대의 타이어를 무상으로 교체했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휠체어 타이어의 마모와 펑크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이러브바이크와 용두암하이킹 측에서 기존 타이어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타이어를 무상으로 지원해 줘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아이러브바이크와 용두암하이킹 측은 이날 고압스팀을 이용한 보조기기 무료 살균과 세척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들 업체는 중증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의 사후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복지청소년과, 푸드마켓에 상품권

제주특별자치도복지청소년과(과장 변태엽)는 4월 24일 기부식품을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전달해 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정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상품권은 올해 1분기 도정시책 홍보 최우수부서로 선정돼 받은 것이다.

변태엽 과장은 “직원들과 마



음을 모아 뜻있는 일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4월 식품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311.5kg ▲서문식품=두부 384모, 콩나물 120봉 ▲김치원=김치 60kg ▲(주)삼다유통=삼다수 2L 1800병 ▲빵피아모=빵 21 봉 ▲아산재단=쌀 200kg ▲이여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상추 68kg ▲이든이네=밀치 4.5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2L 900개 ▲뉴월드마트 서사리점=부식류 18개, 간식류 24개 ▲김제농협=쌀 200kg ▲추자도영농조합 이태협=참조기 207kg, 고등어 13kg ▲YWCA 다인=천연비누 50개 ▲한국감정원 제주지부=30만원 상당 물품
--

사회복지협의회 2012년 3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1,020,000	1,020,000
난치병환아후원	70,000	0
자원봉사후원	655,000	655,000
복지사업후원	1,050,000	513,500
푸드마켓후원	2,940,000	1,960,34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칼럼

피다한 사람들



김길웅

수필가·시인

다니엘 에버렛의 「잠들면 안돼, 거기 뱀이 있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굴이 깊은 아마존 정글이 아니라도 우리 삶에는 고난과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피다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잠을 자지 않는 불편한 생활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한 상황을 여유롭고 유쾌하게 즐긴다. 이 점이 중요하다. 우리 삶은 어쨌든 계속될 뿐이다.”

뱀 때문에 밤잠 못자도 행복

정글의 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아마존 피다한 족. 그래서 밤새 춤추고 노래하며 보내는 사람들. 밤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도 그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이며 행복한 사람들

이다.

그들에 견주면 우리는, 뱀 걱정 없이 잠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피다한 족만이 아니다. 지구상에는 소수민족들이 많다. 그들은 오랜 전통과 풍속을 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다. 이 경우, 고유의 언어는 고립과 단절의 다른 의미다. 세상과의 교섭을 꺼리거나 두려워하면서 문명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중국에 갔다 그곳 소수민족의 삶을 목도한 적이 있다. 장가계, 천안문, 만리장성을 오가는 길목 도처에서 손쉽게 그들과 만날 수 있었다.

관광객이 들끓는 곳이면 어디든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그들.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투박한 민속공예품에서 크고 작은 과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두 손에 들고 호객을 하고 있었다.

그 접근이 사람에게 덤벼들기라도 할 듯 과감하고 적극적임에 놀랐다. 또 놀란 게 있다.

한눈에 한국인인 걸 알아 본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한국어, “몽땅 천 원!”, 까만 비닐봉지에 담긴 굴도 몽땅 천 원이었다.

자그만 굴이 열 알이 더 들어 있

어 보였다. 왜소한 키에 까만 얼굴로 까마귀처럼 지지귀는, 발음 또렷한 “몽땅 천 원”이 내 귀엔 실존의 절규같이 들렸다.

그럼에도 다가오는 그들에게 선뜻 손을 내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매일 그 길목을 지킬 것이다. 생존을 위한 일이지 않은가. 그들에게 한화 천 원은 상상을 초월하게 큰 효용이다.

불평 전에 자기 성찰의 시간을

내면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으나, 표정은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 주어진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모습들이었다.

그들이 한쪽들 틈에 끼어 살게 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으리라. 구차한 삶.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순명의 삶을 사는지 모른다.

피다한 사람들의 불편한 삶도 그들 자신의 선택이다.

지금 우리는 조상이 선택한 한반도라는 터전에서 풍요 속의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 불평을 터트리기 전에 한 번쯤 주위를 둘러보고 아래를 굽어보면 어떨까. 내 할 일은 제대로 하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며.

시론

당선자 복지공약 이행 기대한다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처장

제19대 총선이 끝났다. 제주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서 3선 의원으로서의 영예까지 안았다. 이는 한 지역에서 같은 당 소속 후보가 3번에 걸쳐 승리한 것으로 역사에 남을 기록이다. 그만큼 도민들은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당선자들은 이제 당선 기쁨을 뒤로 하고 도민들에게 제시한 공약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의정활동 추진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도민이 바라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해군기지 갈등 문제를 비롯해 한·미FTA에 따른 1차산업 피해, 신공항 건설, 4·3문제 해결 등이 중요하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복지공약도 소홀함 없이 신경을 써야 한다.

선택받은 만큼 도민의 뜻에 적극 부응해야

이번에 당선자들이 제시한 복지공약의 관점은 전반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빈곤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혜택을 제공하는 등 ‘보편적 복지 3+3’의 실현 등에 주목하고 있다.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이뤄져야 함을 담고 있다.

둘째는 복지예산의 확보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복지재정 확충의 한계와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보험 적용확대 및 기초노령연금지원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법 및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이다. 노인 틀니인 경우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전부틀니’ 뿐만 아니라 ‘부분틀니’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65세에서 74세까지는 ‘부분틀니’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넷째는 산모 및 신생아 관련 공약을 들 수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보미사업,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단가 현실화, 국가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강화를 위한 예산확보를 들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 관련 자원과 교육교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치료비 확대, 체육시설 확충을 비롯해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법 제정 등이다. 또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의 의료보장을 확대하고 교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복지공약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당선자는 김우남 당선자이며 다음은 김재운 당선자 등의 순이다. 김우남 당선자는 의정활동 3년차부터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복지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김재운 당선자는 2년차부터 이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 선택받은 당선자들은 도민의 뜻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공약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세워 4년 후에 그 성과를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공약은 도민과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당선자들의 선전을 기대한다.

기고

사랑의 ‘재능나눔’의 끈이 되어보세요



고태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작년 진행되었던 ‘재능나눔’ 캠페인에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 주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무려 4만명을 넘었다는 사실은 ‘재능나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재능나눔’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명사가 되어 쉽게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며, 나눔 문화의 자원봉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준다.

재능을 나누어 주겠다고 나선 사람 중에는 즉흥적으로, 또는 일회성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자원봉사, 특히 재능나

눔 자원봉사는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도 나타나고, 자신도 보람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지식, 기술 등 다양한 재능을 이용해 기부하는 ‘재능나눔’은 운전과 요리, 빨래, 아이 돌보기 등 가사 봉사에서부터 학업 멘토링이나 어르신 말벗에 이르기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재능나눔’이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흥미나 취미가 모여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 그 모임자체가 재능을 나누는 사례도 있다.

평범한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다른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었던 작은 시작으로 현재 전국 2만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게 된 요리사 모임은 주말을 활용해 그룹홈 등을 찾아가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집수리, 인테리어 등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 어려운 가정의 집을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노숙자를 위한 시설

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주변에도 자극이 되어 디자인을 무료로 해준 대학교수, 건축 자재를 기부해 준 건축업자들, 장비를 들고 공사 현장에 찾아오는 시공업자들 모두를 ‘재능나눔’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으로 모으기도 하였다.

제주에서도 이러한 재능을 가진 만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제주 전역에서 이웃들에게 사랑의 재능나눔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재능·전문성을 나누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과는 달리 직접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나눔이기 때문에 나누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다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재능에 대해 상대방의 존중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부자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또다시 올 한해도 ‘재능나눔’을 통해 어떠한 사람들이 ‘재능나눔’에 문을 두드릴지 설렘 속에 기다려진다. 전화 728-6390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 만듭어요”



20일 한라체육관서 기념식 열려

모범장애인 · 유공자 30여명 표창

‘제3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마당’ 행사가 4월 20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렸다.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각급 기관·단체장, 도의원, 도내 장애인과 가족, 사회복지시설·단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김용국)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에 이어 2부 기념식, 3부 축하공연 및 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장애를 딛고

직업재활시설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강안수씨(22)가 제주도 장한 장애인대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 10여년간 장애인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에 앞장선 오순덕씨(51·여)와 한울간병봉사회(회장 변명호)가 각각 장애인도우미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체장애 1급인 박효민씨(52)는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밖에 모범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등

모두 38명이 표창 및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장 안에서는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한 디자인’을 주제로 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진 전시회’와 ‘원두커피 나눔 행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한편 제주도와 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주간을 맞아 26일 오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날로 지난 1981년 정부가 4월 20일을 ‘제1회 장애인의 날’로 정한 이후 해마다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박효민씨,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장애인 복지 증진에 헌신

제주시 건입동에서 도장집을 운영하는 박효민(52)씨가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체장애 1급인 박씨는 20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제3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장애인상을 받았다.

박씨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그는 1980년대 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 발족추진위원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체장애인 민원실 설치, 한아름자원봉사단, 한마음차량봉사단 설립 등에 참여했다.

특히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운동능력 측정기와 장애인 전용 시험차량을 제주도에 설치하도록 했고,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등 지체장애인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류성철(40·제주시 사회복지과) ▲최은미(여·52·유진재활센터주단기보호시설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김미혜(여·52·제주시 연동) ▲박진석(30·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한상찬(49·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강수지(여·22·행복동지적장애인이자공동생활가정) ▲박준자(여·7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김희신(여·55·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이춘선(여·47·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김미영(여·45·제주장애인연맹) ▲김재훈(30·제주장애인자립생활

센터) ▲김민관(33·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양기훈(30·제주정신요양원) ▲백근수(31·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강혜정(여·53·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고창순(여·53·길직업생활센터) ▲김영수(53·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김방철(70·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귀포시지부) ▲고수경(여·31·서귀포시 전지동) ▲이기현(34·제주영지학교) ▲제주서부로터리클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표창

▲김계진(75·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심부름센터) ▲이동근(49·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고성훈(45·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현아영(여·24·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임현수(39·제주장애인연맹) ▲진영석(55·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김경익(42·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좌봉제(여·39·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감사패

▲변정일(70·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라정열(여·49·제주시 산도1동)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 감사패 및 표창
▲문태정(50·국제로터리 3660지구 동제주클럽) ▲문순애(여·44·애월읍장애인지원협의회) ▲김종호(55·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협회) ▲백은숙(여·42·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신현오(57·대한항공 제주지역본부) ▲안태홍(50·제주시도원1동)



연중기획

'이웃사랑 지원봉사'

→ (4)제주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봉사동아리

“나눔 실천 통해 진정한 봉사 의미 배워요”

10개 동아리 중 · 고교생 300여명
바쁜 학업시간 쪼개 이웃사랑 실천
환경 정화 · 학습지도 등 왕성한 활동



바쁜 학업시간을 쪼개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 스스로 봉사 동아리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속 청소년봉사동아리가 대표적 사례다. 현재 10개 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회원은 모두 중·고등학생들로 300여명에 이른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봉사동아리를 소개한다.



■해맑음

지난 1996년 12월 창단한 해맑음 동아리는 주로 학교 수업이 없는 '놀토'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장애인요양원과 효사랑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청소도 하고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주는 등 손자·손녀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일손도 거들어 주고 있다. 회원은 31명.

■어피니티

회원 수가 57명으로 청소년봉사동아리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효원과 제주정신요양원, 효사랑 등 노인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 배식을 돕고 어르신들의 생일파티도 열어주고

있다. 태극기 달기 캠페인과 매년 자선모금 행사인 '어피니티 포 유'를 열어 모금액을 기부하고 있다.

■프리

자유를 뜻하는 영어 'free'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사진동아리이자 봉사동아리이다. 노인복지시설인 케어하우스와 실버하우스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 등 일손을 돕고 있다. 어린이집 프로그램 업무 보조 역할도 하고 사진 전시회도 열고 있다. 회원은 27명이다.

■푸른사랑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기쁨과 참된 보람을 얻기 위해 결성된 동아리다. 회원은 23명이다. 이들은 매월 제광원과 해수원 등 요양시설을 찾아 노인들

의 말벗이 되어 주고 안마해 주기,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루터기

나무나 풀을 베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그루터기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희망이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입소 아동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등 친동생처럼 돌봐주고 있다. 장애인요양원과 인효원에서 청소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은 30명.

■씨밀레

'친구'라는 뜻의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단어로 세화고등학교 학생 3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촌마을인 세화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

회에 활력을 주고 학생 스스로 꿈을 키우고자 결성된 동아리다. 세화요양원과 지역아동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일손을 돕고 학습을 도와주고 있다.

■프안

씨밀레처럼 '친구'라는 의미의 라오스어로 지난 2010년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동아리다. 당시 라오스에서 해외봉사활동을 마친 후 결성됐다. 경로당을 방문해 청소도 하고 말벗도 되어 주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도 해 주고 있다. 회원은 29명.

■어울림

지난 2010년 사랑의 열매 캠프

프 당시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로 결성된 봉사동아리다. 회원은 33명으로 매월 원광요양원을 방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You & I

환경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성된 동아리다.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활동은 물론 환경 관련 행사 지원과 환경 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회원은 22명.

■KITA

도내 유적지와 관광지에서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회원은 21명.

“기쁜 마음으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청소년봉사동아리 발대식

청소년봉사동아리 소속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참된 봉사 실천을 다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4월 14일 오후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속 10개

봉사동아리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청소년봉사동아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선서를 통해 “우리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겠습니다”며 “이를 통해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을 배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서로 신뢰하며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기쁨을 주는 행동을 하겠다”며 “항상 감사해 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신조로 삼아 일상 생활에 자원봉사 정신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